



石塔分解圖
五層石塔
長文里
井邑

〔註〕古阜는 馬

韓의 「古阜離國」이라는 學者도 있으며 三國史記 卷三十六 地理條에 「古阜郡本百濟古沙夫里郡、景德王改名」이라 한 「古沙夫里」가 곧 이古阜이니 일찍부터 歷史的 要地이었던 바 古

推火 奉聖寺址에 대하여

李 雲 成

邑(後方(北쪽)인 山頂에는 原始型을 보이는 土城址가 있고 또 古邑前方(南쪽)인 斗升山에는 石築 山城址(東國輿地勝覽에) 「斗升山... 略... 有石城、周一萬八百十二尺 號于大壑、疑瀛州時舊城也」가 있다. 그리고 이들 古跡地帶에는 佛敎遺跡도 많다. 곧 ① 古邑 鄕校南方에서 石燈火舍石 一個를 보았고 ② 龍興里 亥丁洞에서 石塔一基와 石佛立像(破損) 一軀를 調査하였고 ③ 龍興里 塔洞에서 石佛座像과 石塔殘石을 調査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高麗朝의 佛跡으로 往時의 佛敎의 盛況을 엿볼 수 있다.

密陽郡 山外面 金谷里 本村 뒷산에는 탑골(塔谷)이라는 절터가 있는데 여러가지 遺物이 發見되어 오던 중 최근 그곳이 三國遺事 寶壤梨木

條의 기록에 보이는 推火(密陽의 新羅時 古號) 奉聖寺의 遺墟임이 밝혀져 九世紀頃 羅末·麗初의 古蹟研究에 또 하나 중요한 資料를 얻게 된 셈이다. 近洞에 사는 父老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二十餘年前에 작은 金銅 부처 三軀를 發見한 일이 있었다 하나 지금 그런 事實을 立證할만한 사 람은 아무도 없으며 항아리(甕), 단지(壺)等 신라토기도 近處에서 흔히 發掘되는 일이 있다 한다. 昨年 十月頃 現地를 답사하여 이 一帶에서 수 집한 資料로서 數個의 기와 조각, 瓦器와 陶器의 破片, 石塔의 基壇面石 과 屋蓋石 各各 하나씩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이러한 遺物을 통하여 奉聖 寺址에 對한 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이 답사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所得 은 文字銘이 된 몇 개의 기와 조각(主로 丸瓦破片)을 수집한 事實인데 바 로 奉聖寺란 절이름이 새겨와 表面에 새겨져 있었다. 세로줄로 楷行이 된 〈型押〉에 依하여 글자가 反對로 浮刻되어 있고 그 솜씨가 또한 古拙 하며 잘 써여진 行書와 楷書로서 그 놀린 型에 따라 字體의 浮刻도 비 교적 확실하였다. 또 特異한 花瓣文, 雲起文, 梵字 等を 押出한 丸瓦, 瓦當 조각을 수집하였고 象嵌靑瓷破片과 新羅土器의 조각도 散見할 수 있 었는데 모두 奉聖寺의 歷史에 緣由하는 遺物들이란 짐작을 해본다. 이밖 에도 石塔의 基壇隅石으로 짐작되는 柱形石材 한 개와 屋蓋石 하나가 아 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는데 그 中 屋蓋石은 軒尾가 水平이고 表面落水面 에는 굽은 골이진 傾斜面 四注形이오 屋蓋案面에는 整然하게 五段으로 이룬 받침을 形成하고 있다. 石材로 미루어 보아 羅末의 手法으로 된 꽤 規模가 큰 塔이라는 推測을 해보지만 흠어진 部分石을 다 收合하여 復元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을 斷定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壁石 두 개는 등 구 밖 돌다리(石橋)의 橋脚이 되어 있고 다른 部分石들도 그러구려 近方 어디선 가 散埋해 있을 것이니 鄉土文化財 保存 을 위하여 유감스러운 點을 함께 發見한 셈이 된다.

다음으로 文獻上 奉聖寺의 由來와 그 位置에 對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三國



瓦片銘文楷書體 (奉聖寺)

遺事卷 第四 寶壤梨木條에는 淸道 雲門寺(初 鵲岬寺)創建由來와 創建主 寶壤師 및 그의 상좌인 龍子 離目에 관한 재미있는 傳說이 실려 있고 이와 관련된 奉聖寺의 기록이 또한 재미있다.

〈云云〉 初師入唐廻、先止于推火之奉聖寺適太祖東征之淸道境、山賊嘯聚于犬城、驕傲不格、太祖至于山下、問師而易制之述、師答曰、夫犬之爲物、司夜而不司晝、守前而忘其後、宜以畫擊其北、祖從之、果敗降、太祖嘉乃神謀、歲給近租五十碩、以供香火、是以寺安二聖眞容、

因名奉聖寺、後遷至鵲岬云云

高麗太祖 王建이 親征軍을 이끌고 廢亡해가는 新羅의 內政을 平定하기 위하여 지금의 慶北 淸道境에 이르러 犬城(지금 密陽華岳山 東쪽에 있는 한재라는 險한 고개)——犬城→大城→한재——을 넘으려 할 때 수많은 山賊이 길을 가로막는지라太祖는 하는 수 없이 親히下山하여 그때 唐에서 돌아오는 길에 奉聖寺에 머물어 있는 寶壤師에게 山賊다스리는 計를 물었다. 寶壤이 術策을 일러주므로 그대로 마랐더니 賊은 과연 降服해오고 無事히 길은 되었다. 太祖는 그 神謀에 탄복하고 그 恩義에 보답하기 위하여 每年 近縣의 租穀 五十碩을 이 절에 받치고 寶壤과 그의 上座 離目(二聖)의 眞容을 모시게 하여 절 이름을 奉聖寺라 하였다. 그 뒤 寶壤師는 雲門山에 들어가 鵲岬寺(至今의 雲門寺)를 세우고 西紀 九三五年(後唐淸泰四年)에는 麗太祖로부터 雲門禪師의 賜額을 받았다는 다. 이로 미루어 보아 奉聖寺는 雲門寺보다 먼저 創建된 既成寺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다만 奉聖寺란 由來가 불기 전에 寺刹名을 考究할 길 없음을 유감된 일이다. 또 同書同條에는 〈興石峴備虛師——一作毗虛——爲昆弟、奉聖石峴雲門三寺、連峰櫛比、交相往還爾云云〉하여 奉聖寺의 위치를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 셈이다. 金谷里에서 始脈한 龍岩山이 至今石骨寺(舊石峴寺)後山인 山內面 日出峯에 이어 있고 그 봉우리는 다시 淸道 雲門山에 連結되어 있으므로 이事實은 三寺의 連峰이 櫛比한 가운데 寶壤과 石峴의 備虛師가 서로 兄弟를 맺어 의종계 지내면서 連峯을 오르내리고 雲門、奉聖의 山門을 왔다갔다 했다는事實을 合理化하는 것이고 興味있는 일이기도 하다. 끝으로 近方의 地名과 奉聖寺와의 關

係인대 이 경우에는 極單純한 結論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절터의 아랫쪽 땅을 일컬어 〈봉숭지〉라 한다하니 〈봉숭〉은 〈奉聖〉의 訛音이오 〈지〉는 곧 〈址〉로서 〈봉숭지〉는 〈奉聖寺址〉로 용이한 理解가 되기 때문이다. 또 〈奉聖址〉라 하는 것이 傳來하는 固有의 우리 말이 아니므로 正確하게 불여진 이러한 漢字地名의 歷史의 背景을 考察할 수도 있고 奉聖寺에 대한 廢寺의 年條까지도 研究해 볼 수 있는 문제이나 後考로 미루겠다.

追記 三國遺事卷二 惠恭王條에 〈先時宮北厠靑中二莖蓮生、又奉聖寺田中生蓮〉이란 것이 있고 小書 孝恭王條에도 〈光化十五年壬申奉聖寺外門東西二十一間鵲巢〉라는 대목이 있으며 小書 栢栗寺條에 또한 〈主持僧移住奉聖〉하여 각각 奉聖寺에 대한 記錄이 보이니 이는 新羅 慶州近郊에 있었던 成典寺刹인 奉聖寺를 이름이오 推火 奉聖寺와는 여러가지 史實로 미루어 보아 無關한 것임을 덧붙여 밝혀둔다.

資 料

安東 場基洞 博塔址

秦 弘 燮

安東郡 北後面 場基洞 벽절部落 西北約 1km 地點에 磨崖 三尊像(本文參照)과 博塔址가 遺存한다. 塔은 完全히 倒壞되었고 基壇마저 破壞되었다. 遺址에는 基壇 面石으로 보이는 花崗石材 三石이 있고(二石은 倒置、一石은 策臺에 埋沒)博이 散在한다. 花崗石材中 一石은 長一三·五cm、幅五四cm 厚一五cm며 가로 세로 물딩이 있다.(圖面) 다른 二石은 長一一·五cm며 그中 一石의 幅은 四五cm였다. 博은 一六×一四·五×五·三cm와 一一·八×二一·三×五·三cm의 二種이 確認되었는데 一角에 小圓孔을 貫通시킨 點이 注目되었다. 또 이 附近에서 唐草文樣의 암